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 **곽성일**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ikwak@kiep.go.kr, Tel: 044-414-1050)
-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차 례 ●●●

1. 아세안 경제통합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
2.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그 의미
3.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역내 변화
4.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주요 내용 ●●●

- ▶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아세안은 자발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해왔고,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함.
 - AEC 출범은 경제통합의 달성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 계기임.
- ▶ AEC는 설립과정에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도입으로 역내 경제환경의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관세 철폐] ASEAN-6는 일반품목에 대해 2010년까지, 후발아세안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2015년 말 기준 96%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됨.
 -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아세안 무역기록관(ASEAN Trade Repository) 내에 구축하고, 철폐 스케줄을 제시함.
 -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아세안 고속도로망’과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를 양대 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운송망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역내 무역원활화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강조] 통관제도, 무역 규정-절차, 표준 및 적합성,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아세안 단일창구 등을 설치하고 항공, 보건, 관광, 물류 부문 등의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 AEC 출범은 동남아 지역에 점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AEC의 정책 목표뿐 아니라 개별회원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꾸준한 분석이 필요함.
 -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행보만큼이나 개별 국가의 중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특히 아세안 지역 로컬기업과의 인적자원 교류나 거래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아세안 기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1. 아세안 경제통합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

가. 아세안 경제통합의 추진 배경

■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가 공식 출범함.

- 아세안 10개국의 단일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AEC의 출범은 2015년 기준 명목GDP 2조 5천억 달러,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의 출현을 의미함.¹⁾
- 형식적이지만 AEC 출범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므로,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은 대내 및 대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통합을 추진함.

- [대내적 요인]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과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강화 과정 속에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함.
 - 아세안은 1997년 태국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함.
 - 전가전자 및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한 단일생산기지 건설을 추구함.
- [대외적 요인] 2000년 전후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경제권의 부상, 양자 및 다자간 FTA 증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시장 형성을 고려함.
 - 중국과 인도 외에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소위 BRICs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 이하 FDI)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FDI 유치전략으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함.
-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은 1997년 ASEAN Vision 2020과 2002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의 추진 이후를 기준으로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 경제통합 노력의 구체화 시기로 진행 과정을 나눌 수 있음.

나.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 과정

■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 외환위기 극복과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아세안은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함.

- 아세안 회원국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후 동남아시아의 지역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는 ASEAN Vision 2020을 1997년에 발표하고, 1998년 첫 중기계획으로 하노이행동계획(1998)을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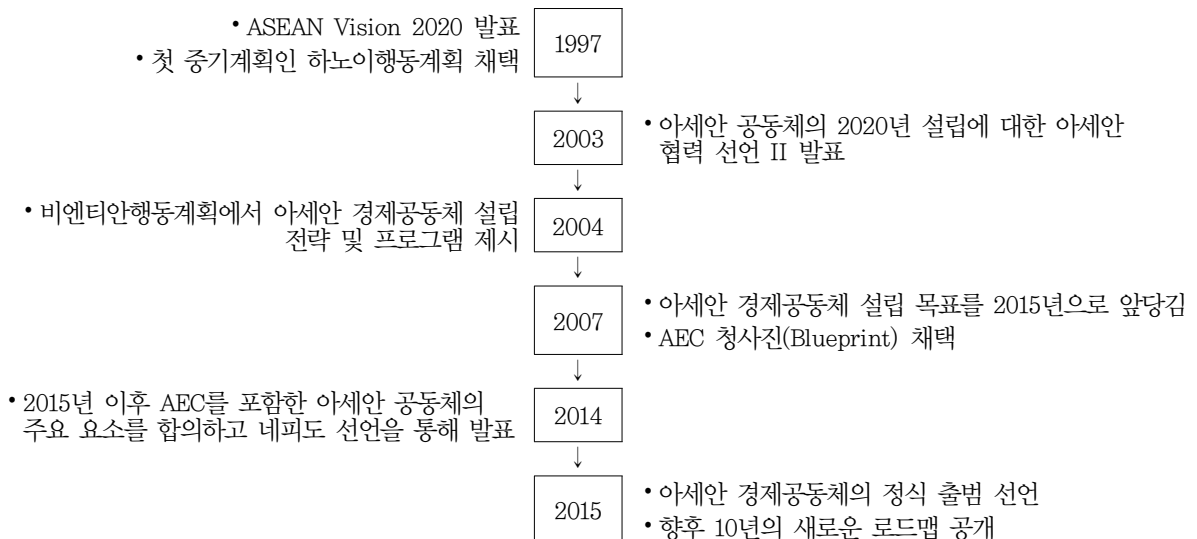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ESAN). 설립 초대 5개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1984년 가입한 브루나이(ASEAN-6로 부름)와 1990년 이후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또는 후발아세안국이라고 칭함) 총 10개국으로 구성됨.

- 본 행동계획은 △거시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 △경제통합 강화 △과학기술 개발 촉진 및 정보기술 인프라 개발 △사회개발 촉진 및 금융·경제 위기의 사회적 영향 축소 △인력양성 촉진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개발 장려 △지역 평화 및 안보 강화 △아태지역 및 세계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대한 아세안의 인지도 및 입지 강화 △아세안 기구 및 메커니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 [경제통합 노력의 구체화기]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II(Bali Concord II)를 통해 2020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을 발표한 후 2007년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청사진(Blueprint)을 발표하고 경제통합 노력을 구체화함.

- 2003년 아세안 안보공동체²⁾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의 2020년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협력 선언 II를 발표함.
- 2004년 2차 중기계획인 비엔티안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me 2004-2010)을 채택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시함.
- 농업기반 제품, 자동차, 전자, 수산업, 고무제품, 목제품, 항공, 섬유 및 의류, e-ASEAN(ICT), 보건, 관광을 11개 우선부문³⁾으로 지정하고 경제통합 달성을 위해 가속도를 낸.
- 2007년 1월 제12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세부선언(Cebu Declaration)을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설립 목표를 2015년으로 앞당겼으며, 11월 제13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EC 청사진(Blueprint)을 채택함.
- AEC가 추구할 주요 4대축(pillar)으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보유한 경제지역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제시하고, 각 축에 대한 핵심요소와 행동조치, 그리고 실행 스케줄을 제시함.
- 2014년 11월 제25회 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아세안 공동체 비전에 관한 주요 합의를 네피도 선언을 통해 공개함.

그림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과정



주: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안보공동체,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를 포함함.

자료: Deloitte(2015), "The ABC of the AEC: To 2015 and beyond"; ASEAN Secretariat(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추후 정치-안보 공동체로 변경.

3) 2006년에는 물류 부문을 추가, 총 12개 우선부문으로 구성됨.

2.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그 의미

■ 2015년 11월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7회 아세안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당초 계획한 12월 31일 정식 출범함을 재확인함.

- 정상회의 결과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대한 2015 쿠알라룸푸르 선언문”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등 10개의 문서로 발표함.
- 향후 10년간 아세안 공동체의 새로운 로드맵 역할을 할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는 아세안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포함함.
-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 사무국은 그간의 AEC 설립 과정과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와 “AEC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를 발표함.

■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경제통합의 최종목표 달성이라기보다는 경제통합의 진행 과정이므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제27회 정상회의는 AEC 청사진 2007의 이행평가 결과와 향후 10년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함.
- 따라서 선언적 의미로 2015년 말 경제공동체를 출범한 후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완성해나갈 것으로 보임.
- 결국 2015년 말 출범한 AEC는 AFTA를 심화 발전시킨 광범위하고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임.
- AFTA로 인해 2014년 말 기준 아세안물품무역협정에 따른 평균 수입관세율이 ASEAN-6는 0.04%, 후발아세안은 1.33%로 거의 사라졌으므로, 추가적으로 비관세장벽 철폐, 무역 원활화, 그리고 투자·서비스 및 생산요소이동의 자유화 등을 허용하는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것임(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p. 9).

■ AEC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자발적으로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역내 변화

■ 2007년 공개한 AEC 청사진은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보유한 경제지역,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추진 축(Pillar)에 기반했음.

- AEC 청사진 2007은 4대 추진 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 17개의 핵심 요소와 행동조치를 두었고, AEC 스코어가 되는 4대 축의 506개 조치 중 469개 조치를 수행, 92.7%의 조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함.⁴⁾

4)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을 보유한 경제지역’ 분야에서 각 21개, 16개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음.

- AEC에 대한 인식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⁵⁾ 현지 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행동조치로 △역내 관세 철폐(28.8%)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20.2%)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18.3%) △역내 무역 원활화(15.4%) △역내 서비스 무역 자유화(13.5%) 등을 꼽음.

표 1 . AEC 청사진 2007 주요 행동조치

AEC 청사진 2007 주요 행동조치	달성 현황
역내 관세철폐	- 일반 품목에 대해 ASEAN-6는 99.2%, CLMV는 90.8%의 상품에 관세 철폐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 필리핀은 2012년, CLMV는 2015~18년까지 비관세장벽 제거 -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총 2,447개의 비관세조치가 신고됨.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 아세안 고속도로망은 총 39,400km 연장 중 25,981km가 완성됨(2012년 기준) - 총 연장 7,000km의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는 신규 철로 개설 및 기존 철로 개선으로 인도차이나반도국 수도를 연결 - 주요 항구로 선정된 47개 항구 중 16개 항구가 건설 완료/건설 중이며, 24개 항구가 건설 예정임. - 아세안 항공자유화 및 단일항공시장 시행, 역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 논의 중
역내 무역 원활화	- 교역·통관 관련 규정, 절차의 기록을 위한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이 국가 무역기록관을 운영 중 - 전자전기,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가 각각 2002년 2009년 서명 후 시행 중
역내 서비스 무역 자유화	- 2010년까지 항공, eASEAN, 보건, 관광부문, 2013년까지 물류부문의 제한을 없애고, 2015년까지 기타 서비스 부문의 제한을 없애기로 함.

자료: The ASEAN Secretariat(2015),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역내 관세 철폐] 2015년 말 기준 96%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CEPT-AFTA 개정 초안에 따라 ASEAN-6는 일반품목(Inclusion List)에 대해 2010년까지, 후발아세안국은 2015년까지(민감품목은 2018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우선통합부문(Priority Integration Sectors)의 수입관세에 대해 ASEAN-6는 2007년까지, 후발아세안국은 2012년까지 일반품목보다 3년 먼저 철폐하기로 함.
- 2015년 관세철폐율은 96%로, ASEAN-6는 99.2%, 후발아세안국은 90.8%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2014년 후발아세안국은 수입품목의 1.6%에 대해 5%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p. 10).

■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조치 철폐에 대한 3가지 스케줄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 AEC 청사진에 따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까지, 필리핀은 2012년까지, 후발아세안국은 2015~18년까지 모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함.

5) 광성일 외(2015),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세안물품무역협정(이하 ATIGA)에 따라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아세안 무역기록관(ASEAN Trade Repository) 내에 구축하기로 함.
- o 아세안 무역기록관은 구축 중으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에 각국의 비관세조치 리스트가 제출됨.⁶⁾
- WTO 통합 무역정보포털(I-TIP Goods)은 반덤핑(ADP), 상계관세(CV), 수량 제한(QR), 긴급 수입제한조치(SG), 위생 및 식물위생(SPS), 특별 긴급 수입제한조치(SSG), 기술 무역장벽(TBT)으로 신고된 비관세조치의 수를 [표 2]와 같이 국별로 보고하고 있음.

표 2. 신고된 비관세조치

	ADP	CV	QR	SG	SPS	SSG	TBT	총(국가별)
브루나이	0	0	0	0	3	0	2	5
캄보디아	0	0	0	0	0	0	3	3
인도네시아	57	0	0	26	102	0	103	288
라오스	0	0	12	0	1	0	1	14
말레이시아	25	0	0	2	36	0	216	279
미얀마	0	0	0	0	0	0	2	2
필리핀	1	0	21	11	302	7	248	590
싱가포르	0	0	91	0	54	0	39	184
태국	36	0	112	4	226	0	565	943
베트남	4	0	0	2	68	0	65	139
총(NTM별)	123	0	236	45	792	7	1,244	2,447

자료: WTO I-TIP Goods(<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검색일: 2015. 12. 13).

■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역내 경쟁력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인프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 1982년 '5개년 통합 기초계획'에서 운송협력 논의를 시작한 이후, 1996년 아세안 교통장관회의를 설립함.
- o 2010년에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기본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2015'를 공개함.
- [그림 2]에 나타난 '아세안 고속도로망'과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를 양대 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 o 총연장 39,400km 아세안 고속도로 망은 2015년 기준 총 26,627km가 완성됨.⁷⁾
- o 2020년까지 모든 지정 국도의 1등급 고속도로화와 저혼잡 노선의 2등급 고속도로화를 통해 아세안 역내 연계성을 개선하고자 함.⁸⁾
- o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7,000km의 철도 노선으로, 1,287km의 신규 철로 설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존 철로 1,253km의 개선도 필요함.
- 역내에 존재하는 많은 군도로 인해 해양 운송망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한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해양 운송의 통합과 경쟁력 개선을 위한 로드맵'과 2014년 '아세안 단일 해운시장 이행 기본틀'을 도입했으며, '아세안 RoRo' 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⁹⁾

6)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non-tariff-measures-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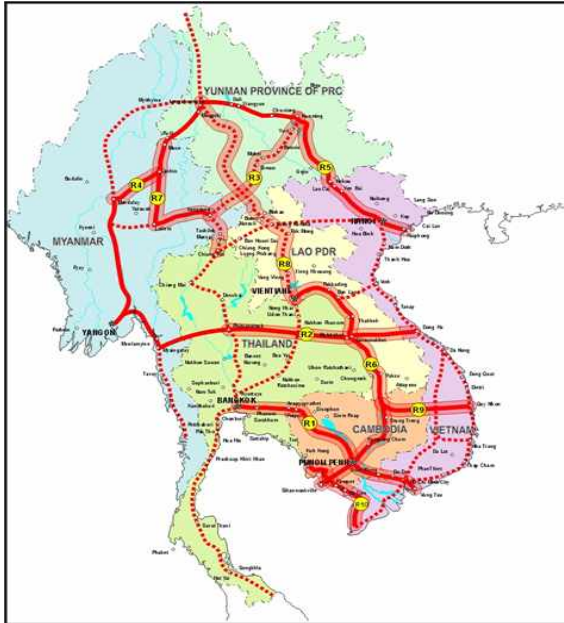
7) Status of the Asian Highway in Member Countries(<http://www.unescap.org/resources/status-asian-highway-member-countries>).

8) 아세안 고속도로 표준은 1등급 고속도로를 4차선 이상의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2등급 고속도로를 2차선의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정의함.

9) RoRo(Roll-On/Roll-Off)는 트럭 등의 화물을 선내로 적재하는 것이 아닌 화물을 적재한 트럭 등이 직접 선내로 들어가는 선박을 말함.

- 47개 항구를 아세안 교통망의 주요 항구로 선정했고, 그중 2014년 기준 16개 항구는 건설 완료 혹은 건설 중이며, 24개 항구는 건설 예정임.

그림 2. 아세안고속도로망(좌)과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우)



자료: IAI Project Formulation Workshop(2002), "Integrated Strategic Regional Development Plans For the Upgrading of Secondary Roads Connecting to the ASEAN Highway Network in CLMV Countries."

자료: ASEAN Secretariat(2011),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재인용: JETRO(2008), "ASEAN Logistics Network Map Study."

- 역내 상품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품수송 원활화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 △국가간 운송 원활화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 △복합운송¹⁰⁾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에 합의함.

■ [역내 무역 원활화] AEC 청사진은 교역, 통관 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해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자 함.

- 2008년 아세안경제장관회의는 ATGIA 35조에 근거해 '아세안 무역 원활화 작업 프로그램(ASEAN Trade Facilitation Work Programme)'을 도입하고 무역, 관세 절차 및 관련정보의 표준화, 통일 및 단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본 프로그램은 통관제도, 무역 규정 절차, 표준 및 적합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아세안 단일창구 등을 포함함.
-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설치하여 교역 및 통관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규제의 투명성 및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려 함.¹¹⁾
- 한 번의 절차로 통관과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무역원활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0) 철도와 항공, 선박과 항공과 같이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뜻함.

11) 현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이 개별국가 무역기록관 웹 포털을 운영 중임.

- 아세안 회원국 관세법의 예측가능성·일관성·투명성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진, 통관절차 및 관행의 단순화와 통일, 관세 당국간 협조 등을 포함한 관세 통합에 관한 ATIGA 6장은 2012년 서명 후 2014년 시행됨.
-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STRACAP), 표준통일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상호 인증 및 규제의 일관성 등을 통한 비관세조치의 완화도 논의함.
 - STRACAP에 대한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의해 표준 통일 및 기술규제를 통제하고 있음.
 - 전자·전기,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및 부품, 식료품, 건축 및 건설자재,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고무제품에 대한 상호 인증제도가 우선 논의되어, 현재 전자·전기와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가 각각 2002년과 2009년 서명 후 시행 중이며 화장품의 경우 아세안 화장품지침으로 대체됨.
 - ‘아세안 화장품 통일 규정’과 ‘아세안 전자·전기 통일 규정’은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은 2014년 11월 서명하였으며, 현재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규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임.

■ AEC 청사진은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경제 통합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함.

- WTO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이 발표되고 1년 후인 1995년 ‘아세안 서비스 기본협정’의 서명으로 서비스부문의 통합이 처음으로 제도화됨.
- AEC 청사진에 따르면 4대 우선부문(항공, e-ASEAN, 보건, 관광)은 2010년까지, 물류부문의 제한은 2013년까지 모두 없애고, 2015년에는 기타 서비스 부문의 제한까지도 없애기로 함.

4.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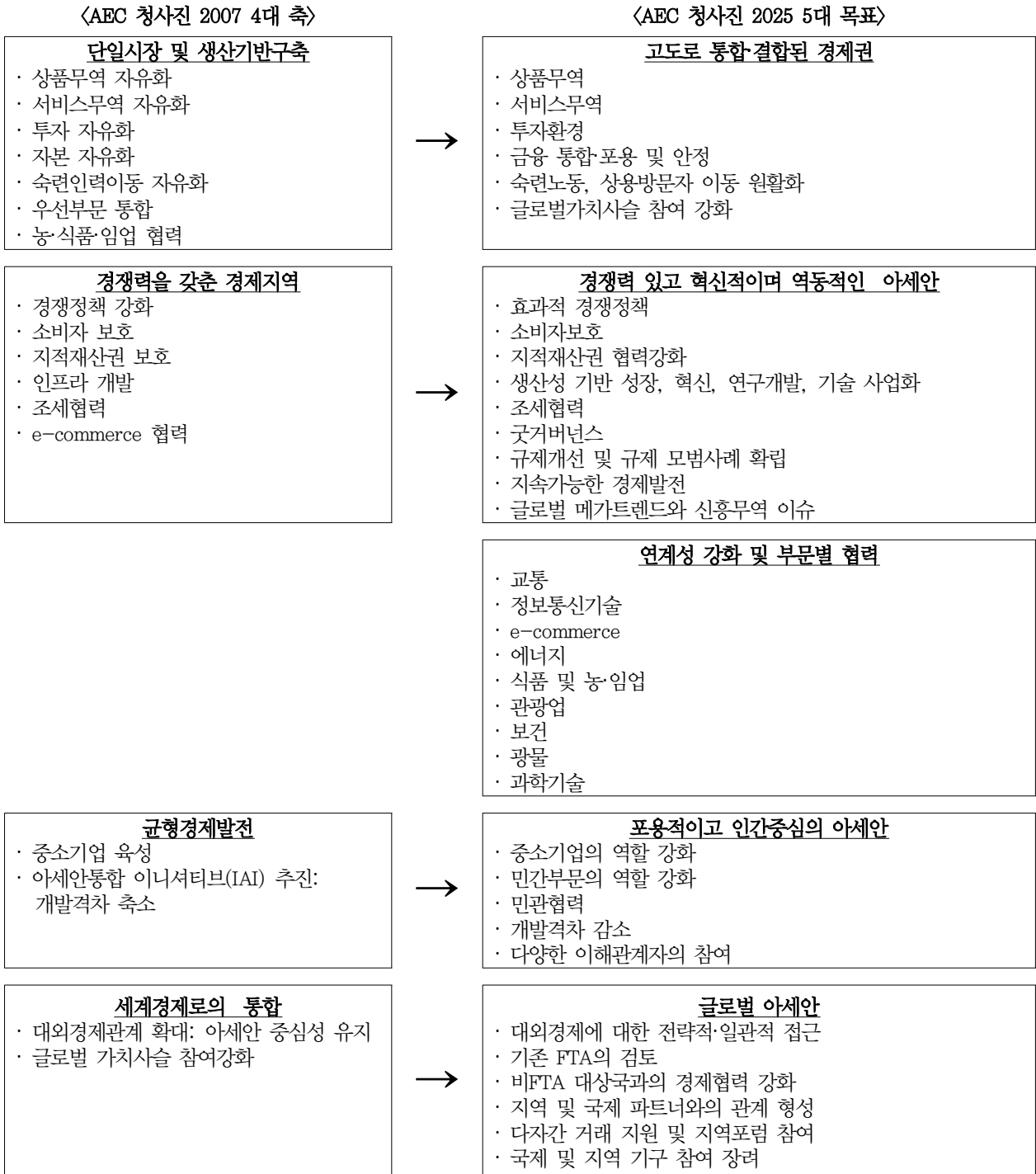
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미래

■ 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세안 공동체의 새로운 로드맵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는 AEC의 향후 5대 목표와 핵심요소를 “AEC 청사진 2025”라는 형태로 제시함.

- 새로운 “AEC 청사진 2025”는 [그림 3]처럼 기존의 4대 추진 축을 심화한 5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인 핵심요소로 구성됨.
-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 형성]**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아세안의 무역과 생산망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통일된 시장을 설립함.
 - 국가간 장벽을 낮추고 상품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아세안상품무역협정의 강화,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실행 강화, 무역 원활화 조치의 가속 및 심화라는 전략조치를 설정함.
-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요소로 구성됨.
 - 효과적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 아세안 및 국제 관행에 기초한 경쟁법 제정과 수행, 공정경쟁 유관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경쟁인지(competition-aware) 지역 조성, 경쟁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역협조 및 역내 통일, FTA 및 무역 상대국과 합의한 경쟁정책 보장, 국제 관행을 고려한 아세안 경쟁정책 및 제도 강화전략을 고려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범아세안 소비자보호체계 수립, 소비자권한 및 지식수준 증대, 소비자 및 범국가적 거래 신뢰 증진, 각국 정책에 소비자 관련 현안 권장, 상품·서비스 부문 소비자 보호 장려의 전략을 수립함.
- 지적재산권 사무소 설립과 인프라 구축, 역내 지적재산권 플랫폼 개발, 아세안 지적재산권 생태계 확대, 자산 형성 및 사업화 장려와 같은 전략조치를 통해 역내 지적재산권 협조를 강화하고자 함.

그림 3. AEC 청사진 2007의 4대 축과 AEC 청사진 2025의 5대 목표



자료: The ASEAN Secretariat(2007), "AEC Blueprint"; The ASEAN Secretariat(2015), "Fact Sheet on AE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맞춰 운송, 통신, 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함.
 - 기존 4대 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와 e-commerce 부문을 따로 떼어내어 발전시켜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점은 연계성 강화가 향후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주력 분야임을 의미함.
 -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기존 청사진의 균형경제발전을 심화하고 다른 요소와의 융합을 모색함.
 - 기업가정신 촉진 및 인적 자본개발의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세안 기업인자문위원회(ASEAN-BAC)의 역할 강화와 같은 포용적인 절차 수행으로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민관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인프라 사업 시 민관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글로벌 아세안]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의 세계경제 참여 목표를 설정함.
 - 아세안 회원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FTA를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경제통합 노력의 실현물인 AEC는 성립 과정에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도입으로 역내 경제환경의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이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이후 역내 GDP 증가율보다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¹²⁾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비중도 증가하는 등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됨.
 - AEC 출범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여 향후 역내 판매 및 투자 증가, 노동력 증가 등 기초 경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글상자 1.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기업 및 역내 진출기업 사례

- 베트남 Trung Nguyen Coffee는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부서 설치, 수직결합, 파트너와의 협력 등의 전략으로 성장,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60개가 넘는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60여 국가에 수출 중임.
- 아세안 회원국과의 합작 및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브루나이의 목재회사 Tri-Sun(B)Sdn Bhd는 아세안 시장의 통합으로 생산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2001년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는 역내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아세안의 항공시장 통합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enso Corporation은 아세안 국가에서 29억 달러를 투자해 22,000명 이상을 고용하였고 ATIGA의 무역 원활화, 자가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서류작업 시간단축과 무역관련 비용을 절감하였고 이는 아세안 시장 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The ASEAN Secretariat(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12) 현시비교우위지수에 대한 설명과 수출경쟁력의 기간별 변동은곽성일 외(2015),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pp. 49~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 아세안 회원국은 AEC가 경제통합을 위한 목표임과 동시에 경제통합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임.

-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부, 입법부,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
- 경제통합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지역과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지역간 조정을 고려해야 함.
- 차후 관세동맹, 비숙련 노동의 이동 등 기존 청사진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아직 저조한 AEC 인지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우리의 대응

■ AEC 출범이 유발할 장기적 변동에 대응하여 정부와 한국기업 간 유기적 보완 관계 속에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AEC가 설정한 정책목표뿐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아세안 회원국은 AEC를 통한 경제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AEC의 행보만큼이나 개별 국가의 중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 특히 출범 이후 통합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제도 및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각국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중소기업에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수 요소임.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정보의 분석능력 면에서 중소기업은 열악했음.¹³⁾

■ TPP 타결은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미가입국 간의 내부 연대성을 약화해 AEC의 효과를 반감할 수 있음.¹⁴⁾

-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형태와 권한을 갖고 역내 조정자 역할이 가능해야 할 것임.

■ AEC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용적·통합적 시각하에 아세안 지역별

13) 광성일 외(2015),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아세안 중심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아세안이 추동력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아세안의 핵심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운용에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가하고, 아세안 의장국이 지역협력체 의장국을 겸임하면서 의제 선정의 우선권을 확보해 자신들 중심의 지역협력 구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임. 이 원칙을 통해 아세안은 마중일 사이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데 성공하고 있음.

· 산업별 맞춤형 진출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EC의 출범은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중국과의 경쟁을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일본·중국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지역과 분야를 발굴해 포용적 관점에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해야 함.
- 예를 들어 아세안의 마지막 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제2의 베트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므로 정보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아세안 지역 로컬기업과의 인적자원 교류나 거래관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기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KIEP**